

[28~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한참 정이와 별의별 말이 다 오고 가고 하였을 때, ‘불단집’에서 마약 설거지를 하고 있던 갑순이 할머니가 뛰어나왔다. 갑순이 어미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들 모녀를 상대하여서도, 할 말에 궁하지는 않다고 은근히 마음에 준비가 있었던 것이나, 뜻밖에도 갑순이 할머니는 자기 딸의 역성을 들려고는 하지 않고,

㉠ “에최에 너가 말 실수헌 게 잘못이지, 남을 탄해 뭘 허니? 이게 모두 모양만 송업구……. 은, 글썽, 그만 허구 들어가야. 니가 잘못했어. 네 잘못이야.”

하고 도리어 딸을 나무라던 것을, 갑순이 어미는 그 당장에는, 귀에 솔깃하여,

“그렇지. 자체가 먼저 말을 냈지. 나야 그저 대꾸헌 죄밖엔 없으니까. 잘했든 잘못했든 자체가 시초를 낸 게니까——”

하고, 뽕내도 보았던 것이나, 나중에 깨달으니 그것은 일도당토 않은 생각으로, 갑순이 할머니가 그렇게 자기 딸을 꾸짖으며 한사코 집으로 데리고 들어간 것에는,

㉡ “아, 그 배지 못한 행랑것허구, 쌈이 무슨 쌈이나?”

“똥이 무서워 피허니? 더러우니까 피허는 게지!”

하고, 그러한 사상이 들어 있었던 것이 분명하였다.

사실, 을득이 녀석이 나중에 보고하는데 들으니까, 저녁때 돌아온 집주름 영감이 그 얘기를 듣고 나자,

“개두 그만 분별은 있을 아이가, 그래 그런 상것허구 욕지 거리를 허구 그러다니…….”

젓, 젓, 젓 하고 혀를 차니까, 늙은 마누라는 또 마주 앉아서,

“그렇죠, 그렇구 말구요. 쌈을 허드래두 같은 양반끼리 해야지, 그런 것허구 허는 건, 꼭 하늘 보구 침 뱉기지. 그 욕이 다야 내게 돌아오지, 소용 있나요.”

㉢ 그리고 후유우 하고 한숨조차 내쉬는데, 방 안에서들 그러는 소리가 대문 밖까지 그대로 들리더라 한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 골목 안 아홉 가구가 공동변소처럼 쓰는 불단집 소유의 뒷간에 양 서방이 갇힌다.

그는 아무리 상고하여 보아도 도무지 나갈 도리가 없는 것에 은근히 울화가 올랐다.

‘제 집 뒷간두 아니구 남의 집 것을 그렇게 기가 나서 꼭꼭 잠그구 그럴 건 뭐 있누? 늙은이두 체엔장할…….’

㉤ 인제는 할 수가 없으니, 소리를 한번 질러 볼까? —— 하기도 하였으나, 이러한 경우에 있어, 사람들은, 흔히 자기가 꼭 어떠한 수상한 인물인 듯싶게 스스로 느껴지는 경향이 있다. 그래, 그는 생각 끝에,

“아, 누가 문을 잠겼어어어?”

“문 좀 여세요오, 아, 누가…….”

하고, 그러한 말을 제법 외치지도 못하고 그저 중얼대며, 한참이나 문을 잡아, 흔들어 자물쇠 소리만 덜거덕거렸던 것이다.

을득이한테 저의 아버가 불단집 뒷간에 가 갇혀 있다는 말을 듣고, 어인 까닭을 모르는 채 그곳까지 뛰어온 갑순이 어미는, 대강 사정을 알자, 곧 이것은 평소에 자기에게 좋지 않은 생각을 품고 있는 갑순이 할머니가 계획적으로 한 일임에 틀림없다고 혼자 마음에 단정하고,

“아아니, 그래, 애아빠이 미우면 어떻게는 못 해서, 그

[A] 더러운 뒷간 속에다 글썽 가뉘야만 헌단 말예요? 그래 노인이 심사를 그렇게 부러야 웅단 말예요?” 가슴 경가...?...

하고, 혼자 흥분을 하였다. 갑순이 할머니는, 그것은 전혀 예기 하지 못하였던 억울한 말이라, 그래, 눈을 둥그렇게 뜨고, 손조차 내저어 가며,

“그건, 괜한 소리유, 괜한 소리야. 이 늙은 사람이 미쳐서 남을 뒷간 속에다 가뉘? 모르구 그랬지, 모르구 그랬어. 난 꼭 아무두 없는 줄만 알구서, 그래, 모르구 자물쇠 쳤지. 은, 알구야 왜 미쳤다구 잠그겠수?”

발명을 하였으나,

“모르긴 왜 몰라요. 다야 알구서 한 짓이지. 그래 자물쇠

[C] 쳤 때, 안에서 말하는 소리두 못 들었단 말예요? 듣구두 모른 체했지. 듣구두 그냥 잠가 버린 거야.”

하고, 갑순이 어미는 덮어놓고 시비만 걸려는 것을, 구경 나온 이웃 사람들이,

“아무러기서루니 갑순이 할머니께서 아시구야 그러셨겠소?”

“노인이 되셔서 귀두 어두시구 그래 몰르셨지!”

하고 말들이 있었고, 정작, 양 서방이 또 머뭇거리다가,

“자물쇠 채실 때, 내가 열른 소리를 냈어두 아셨을 텐데, 미쳐 못 그래 그리 된 거야.”

하고, 그러한 말을 매우 겸연쩍게 하여, 갑순이 어미는 집주름집 마누라를 좀더 공박할 것을 단념하여 버릴 수밖에 없는 동시에,

㉥ “오오, 그러니까, 채, 무어, 말할 새두 없이 문이 잠겨져서, 그냥 갇힌 채, 누구 오기만 기대린 게로군?”

“그래, 얼마 동안이나 들어가 있었어?”

“뒤편 오래야 감혔겠수? 동안이야 잠깐이었지만…….”

- 박태원, 『골목 안』 -

* 불단집: 집 밖에도 전등을 단, 살림이 넉넉한 집.

28. 뒷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집 안에서의 대화가 이웃에 노출되어 인물의 속내가 드러난다.
 - ② 서로의 말실수에 대한 비난이 인물 간 다툼의 원인이 드러난다.
 - ③ 이웃의 갈등을 곁에서 지켜보고 있는 인물들의 냉담함이 드러난다.
 - ④ 이웃을 무시하는 인물의 차별적 언행을 함께 견뎌 내려는 사람들의 결연함이 드러난다.
 - ⑤ 곤경에 빠진 가족의 상황을 다른 가족에게 전한 것이 이웃 간 앙금을 씻는 계기가 됨이 드러난다.

○ 손가락 걸기

아..... 새 뉘지

할머니 상투당 딸

갑순맘: 난 잘못 없음

② 갑순맘=똥

똥하고 딸을 왜 함?

내 말어... ③

여기까지 이해하는 데 머리 깨지는 줄 알고 중략 뒤는 꼬리 후 문제로

29. [A]~[C]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

- ① [A]에서 인물은 상대의 행위가 옳지 않다고 판단하여, 반복적으로 추궁하며 상대가 잘못했음을 분명히 한다.
- ② [B]에서 인물은 상대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모르고 그랬다는 말을 반복함으로써 자신의 억울함을 알린다.
- ③ [C]에서 인물은 추측을 바탕으로 상대의 발언이 신뢰하기 어렵다고 반박하고, 상대의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고 거짓으로 답했다며 몰아붙인다.
- ④ [A]에서 인물은 상대의 행위와 동기를 함께 비난하고, [B]에서 인물은 상대의 비난을 파악하지 못해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 ⑤ [A]에서 인물이 상대에게 화를 내자, [B]에서 인물은 당황하며 자신을 방어하지만, [C]에서 갈등 상황은 지속된다.

중략 이후는 [A], [B], [C] 위주로만 읽었습니다.

손가락 걸기

30. 집주름 영감과 양 서방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집주름 영감이 딸의 행동을 분별없다고 탓한 이유는 아내가 갑득이 어미 앞에서 딸을 나무란 뒤 남편에게 밝힌 생각과 같다.
- ② 집주름 영감은 아내와 갑득이 어미의 갈등이 드러나지 않게 하는, 양 서방은 결과적으로 이들의 갈등을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
- ③ 양 서방이 여러 궁리를 하면서도 뒷간을 빠져나오지 못한 이유는 아내에게 밝힌 사건의 경위와 무관하다.
- ④ 양 서방은 아내가 갑순이 할머니에게 한 말과 이에 대한 이웃들의 반응을 듣고도 아내에게 무덤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 ⑤ 양 서방이 자신의 상황을 갑순이 할머니에게 알리지 못했다고 말한 것은 누가 뒷간 문을 잠갔는지에 대한 의문이 풀려서 화가 누그러졌기 때문이다.

31. <보기>를 참고하여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먼저 읽었지만 도움되는 보기는 아니었음.

<보 기>
 서술자는 자신의 시선만으로 서술하기도 하고 인물의 시선으로 초점화하여 서술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 작품에서는 두 서술 방식이 겹쳐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서술자는 인물과 거리를 두고으로써 그들의 말이나 생각, 감정 등에 대한 태도를 드러낸다. 이 밖에도 점표의 연이은 사용은 시간의 지연이나 인물의 상황 등을 드러낸다. 이러한 서술 기법은 문맥 속에서 글의 의미를 다양하게 보충한다.

- ① ㉠: 말줄임표 이후 점표를 연이어 사용한 것은, 인물이 자신의 생각을 감추거나 다른 할 말을 떠올리면서 시간의 지연이 있음을 드러낸 것이겠군.
- ② ㉡: 서술자 시선의 서술과 인물의 시선으로 초점화한 서술이 겹쳐 나타난 것은, 상황을 잘못 인지한 채 상대의 생각을 추측하는 인물에게 서술자가 거리를 두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겠군.
- ③ ㉢: 말을 전하는 '~라 한다의 주체가 인물일 수도 있고 서술자일 수도 있게 서술한 것은, 인물의 경험을 전하기만 하고 특정 인물의 편에 서지 않으려는 서술자의 태도를 드러낸 것이겠군.
- ④ ㉣: 인물의 생각에 대해 점표를 연이어 사용하며 설명한 것은, 인물이 생각을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망설이는 상황을 드러낸 것이겠군.
- ⑤ ㉤: 감탄사 이후 점표를 연이어 사용한 것은, 인물이 새로운 정보를 바탕으로 사건을 파악하는 상황을 드러낸 것이겠군.

~라 한다 = ~하더라 => 정보 전달

~나 게르군?

[32~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장풍에 돛을 달고 육선이 함께 떠나
 삼현과 군악 소리 해산을 진동하니
 물속의 어룡들이 응당히 놀라리라
 해구를 열린 나서 오류도를 뒤 지우고
 고국을 돌아보니 야객이 아득하여
 아무것도 아니 뵈고 연해 각진포에
 불빛 두어 점이 구름 밖에 별 만하다
 배 방에 누워 있어 내 신세를 생각하니
 가뜩이 심란한데 대풍이 일어나서
 태산 같은 성난 물결 천지에 자욱하니
 크나큰 만곡주가 나뭇잎 불리이듯
 하늘에 올랐다가 지함에 내리지니
 열두 발 쌍돛대는 차아처럼 굽어 있고
 선두 폭 초석 돛은 반달처럼 배불렀네

[A]

(중략)